

# 許筠 文集 번역과 한문 고전 번역의 몇 가지 문제\*

정길수\*\*

- 1. 머리말
- 2. 원문 착오로 인한 오역
- 3. 詩 번역의 몇 가지 문제
- 4. 文 번역의 몇 가지 문제
-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蛟山 許筠의 文集 『桴所覆瓿藁』와 『乙丙朝天錄』의 번역서를 대상으로 삼아 문집을 비롯한 한문 고전 번역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원문 입력·교열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오역, 제목 오역,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본문 오역 및 주석 오류, 기타 주석 미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오역이 일어난 원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기획·추진 중인 한문 고전 번역 사업에서 양질의 학술번역 성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적절한 번역 분량의 산정, 사전 교열·감수 기능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강구, 번역 결과물의 수정·보완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 핵심어: 고전 번역, 학술번역, 許筠, 文集, 『桴所覆瓿藁』, 『乙丙朝天錄』

## 1. 머리말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은 까다롭기 짝이 없다. 두 개의 다른 언어 사이에서 원작 언어의 미묘한 느낌을 살려내는 일이 쉬울 수 없다. 다른 언어권의 현대문학을 옮기는 일도 이러한 현대 시대적 간극이 큰 중세 문학이 번역 대상이라면 어려움은 가중된다. 더구나 원작이 함축적인 표현, 특히 중세인의 지식과 교양이 농축된 어구로 가득하다면 또 한 번 어려움이 배가된다.

한문 고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앞서 열거한 번역의 난제를 모두 헤쳐가야 함을 의미한다. 한문 고전 번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문집 完譯이다. 문집에서 작품의 일부를 選擇한다거나 연구논저에서 일부 작품을 인용 번역하는 일은 完譯에 비하면 쉬운 일이다. 해석에 자신이 없는 작품은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집 完譯은 비교적 번역이 쉬운 文體이든 까다로운 文體이든 문집에 수록된 모든 장르의 모든 작품을 옮겨야 한다. 아무리 궁리해도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구절, 정확한 주석을 가할 수 없는 어구에 수시로 맞닥뜨리지만 달아날 자리가 없다.

최근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역별 거점 번역연구소를 선정하여 한문문집 번역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번역되어 널리 읽힐 만한 가치가 있는 문집은 많지만 번역할 사람은 태부족이고 앞으로 한문고전 번역 상황이 나아지리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문 고전 번역에 관한 문제 제기와 진단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지만,<sup>1)</sup>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문집 번역의 몇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현행 문집 번역·주석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필자가 최근 蛟山 許筠(1569~1618)의 작품을 選擇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허균 문집 번역서 2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는 『국역 성소부부고』이고, 다른 하나는 『국역 을병조천록』이다.<sup>2)</sup> 『국역 성소부부고』는 허균 생전에 손수 엮은 문집 『桴所覆瓿藁』 전체를 완역한 성과로, 그동안의 허균 연구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이용되어 온 규범적인 번역서이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乙丙朝天錄』은 『성소부부고』를 엮은 이후 만년의 허균이 1615년(광해 7)부터 이듬해에 걸쳐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쓴 시를 묶은 시집이다. 오랫동안 제목만 전하고 실체를 알 수 없던 이 시집을 발굴해 번역한 결과가 『국역 을병조천록』이다. 지금으로서 『乙丙朝天錄』이 베일에 가린 듯 아리송한 허균 만년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니, 이 책의 번역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허균의 전체 작품을 完譯한 것이 아니라 주요 작품을 選擇해 보았을 따름이다. 또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한문고전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번역의 난점에 대해서는 진재호, 「한문고전 번역의 특수성의 안과 밖」(『민족문화』 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5~37면; 이상하,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계간 연계의 필요성」(『대동한문학』 31, 대동한문학회, 2009), 171~174면; 권경열, 「한문고전번역의 특성과 과제」(『인문학논총』 28,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72~76면 참조. 고전번역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과 시안에 대해서는 안대회, 「한문고전번역서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모델」(『민족문화』 30, 한국고전번역원, 2007), 9~24면; 윤재민·이동철 외, 「한문고전 정리·번역 시스템 연구」(『민족문화』 33, 한국고전번역원, 2009), 267~270면; 송혁기,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서 평가에 대한 일고」(『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137~139면 및 155~159면 참조.

2) 이하 『국역 성소부부고』(민족문화추진회, 중판, 1986)와 『국역 을병조천록』(국립중앙도서관, 2005)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한 앞선 번역서들을 참조했기에 수많은 오류를 미리 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오류를 범했으리라 생각한다. 이 점만 보더라도 필자가 先學들의 完譯 작업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다. 다만 필자가 최근의 작업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향후 문집 번역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바,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학들의 번역서를 들어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된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2. 원문 착오로 인한 오역

처음 살필 사항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여러 성과 중 한문학 연구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한국문집총간에 포함된 문집들의 한문 원문을 전산 입력하여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문집 번역을 할 때의 대본 역시 대개는 이 전산 입력된 텍스트이다. 그런데 전산 입력된 자료에 더러 誤字가 섞여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字樣이 비슷한 글자를 착각하여 입력하고 교열 과정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로 생각된다.

화계요 목난이며  
민괴요 산호라<sup>3)</sup>  
(火齊木難, 玫瑰珊瑚)

「對詰者」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밑줄 친 ‘민괴’(玫瑰)는 ‘玫瑰’(매괴)의 잘못이다. 원문의 ‘玫’를 자양이 비슷한 ‘致’와 혼동하여 글자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잘못 옮긴 것이다. ‘火齊’와 ‘木難’에 대해서는 “옥의 일종”이라는 주석을 달았지만 ‘민괴’에 대해서는 주석이 없는데, 이는 ‘매괴’를 ‘민괴’로 잘못 옮겼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玫瑰’는 장밋빛 보석인 玫瑰石을 말한다.

바람 앞의 새소리도 깊은 대숲 의지하고  
비 뒤라 복사꽃은 저문 조수 넘실대네<sup>4)</sup>  
(風前鳥語依深竹, 雨後桃花漲晚潮)

허균이 1611년 봄 유배지인 전라도 咸悅에서 쓴 「記興」 제3수의 起句와 承句이다. 여기서는 밑줄 친 ‘潮’가 ‘潮’의 오기이다. ‘潮’를 ‘潮’로 잘못 적고 이를 번역한 까닭에 앞뒤 글자의 해석은 물론 承句 전체의 해석에도 미세한 문제가 발생한다. ‘潮’를 ‘潮’로 바로잡고 보면 承句는 ‘복사꽃은 비 온 뒤 저녁 호수에 가득하네’ 정도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答李生書」 중의 다음 구절도 꽤 큰 의미 차이를 보이는 오기 사례이다.

마침 추관(秋官)의 헌의(獻議)에 참석하게 되어 문에 당해 불려 재촉하므로 대강 답장으로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오.<sup>5)</sup>

- 3) 許筠, 「對詰者」, 『국역 성소부부고』, II-222면.  
4) 許筠, 「記興 - 用汝陰三絶韻」, 『국역 성소부부고』, I-204면.

(方赴秋官獻議, 當關呼促, 草草奉覆, 不盡欲言.)

원문의 “獻議”(언의)를 ‘獻議’로 잘못 옮긴 경우인데, 두 단어의 의미는 꽤 다르다. ‘獻議’가 ‘윗사람에게 의견을 아뢰는 뜻’이라면, ‘獻議’는 ‘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일’이다. 문맥상으로 보아도 刑曹의 형벌 판결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원문의 ‘獻議’에 따라 번역문을 ‘언의’(讞議)로 고치고 적절한 주석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서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그 밖의 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번역서에서는 꽤 자주 발견된다. 『국역 율병조천록』의 경우를 보자.

맑은 아침 대머리 늙은이가 책 태워도  
그 도는 아직도 다 타지 않고 남아 있네.<sup>6)</sup>  
(清朝焚却禿翁父, 其道猶存不盡焚.)

「讀李氏焚書」 제1수의 起句와 承句이다. 起句의 밑줄 친 “父”는 ‘文’의 오기이다. ‘禿翁文’이 아니라 ‘禿翁父’라 보았기에 ‘(맑은 朝廷에서) 禿翁[李卓吾]의 책을 불살랐지만’이라고 옮겨야 할 것을 주체가 혼동된 채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름난 절 와서 보니 간밤의 한 꿈이고  
눈에 보이는 안개 꽃 새봄이네.<sup>7)</sup>  
(名剎到頭都昨夢, 烟花入眼且新春.)

「元日有感」의 제5·6구이다. 밑줄 친 “刹”은 ‘刹’의 오기이니, 제5구는 ‘명예와 이익 모두 간밤의 꿈일 뿐’이라 번역되어야 한다.

다음은 명나라의 양명학자 章潢의 책을 읽고 쓴 「讀章本清心性說有感」 제4수의 起句와 承句이다.

부지런히 배울 테니 날 쫓지만 말게나.  
반드시 낮은 데서 높이 오름 누가 아나?<sup>8)</sup>  
(孜孜問學莫吾難, 誰識升高必自卑.)

起句의 밑줄 친 “難”는 ‘嚙’의 오기이다. ‘부지런히 공부할 테니 나를 비웃지 마오’라고 번역해야 옳다.

이상 검토한 예는 모두 원문을 잘못 읽거나 잘못 입력한 1차 오류에 이어, 잘못된 원문 텍스트를 대본으로 삼은 결과 자연히 번역문에도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입력 원문을 원본과 거듭 대조하여 교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3. 詩 번역의 몇 가지 문제

- 5) 許筠, 「答李生書」, 『국역 성소부부고』, II-180면.  
6) 許筠, 「讀李氏焚書」, 『국역 율병조천록』, 43~44면.  
7) 許筠, 「元日有感」, 『국역 율병조천록』, 85면.  
8) 許筠, 「讀章本清心性說有感」, 『국역 율병조천록』, 91면.

## 1) 제목 번역

시 제목을 잘못 옮긴 경우를 들어 보기로 한다. 『和思穎詩』로 묶은 시 중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우회(寓懷)하여 동행(同行)에게 바친 운을 쓰다』(寓懷-用呈同行韻)
- 『부사(賦事)하여 자리(子履)에게 답한 운을 쓰다』(賦事-用答子履韻)
- 『흥(興)을 기록하여 여음(汝陰)의 삼절(三絶)의 운을 쓰다』(記興-用汝陰三絶韻)
- 『명주(溟州)를 추억하여 희서(戲書)의 운을 쓰다』(憶溟州-用戲書韻)
- 『오창(午窓)에 청주(靑州)의 운을 쓰다』(午窓-用靑州韻)<sup>9)</sup>

우선 시의 제목과 副題를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번역한 잘못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를테면 마지막 시 제목은 ‘午窓’이고 ‘用靑州韻’은 부제인바, 일단 위 번역에 따라 제목을 쓰면 ‘午窓 - 靑州의 운을 쓰다.’라고 해야 한다.<sup>10)</sup>

좀 더 중요한 문제는 ‘思穎詩’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제를 번역한 점이다. 허균의 『和思穎詩』 26편은 宋나라 歐陽脩의 ‘思穎詩’에 和韻한 것이다. 구양수가 자신이 은거하고자 했던 安徽省의 潁州(지금의 阜陽市)를 그리며 일련의 ‘思穎詩’를 지었듯이 허균은 ‘思穎詩’의 韻을 빌려 돌아가고자 했던 강릉을 그리는 시를 지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부제는 모두 ‘思穎詩’의 제목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차례대로 나란히 대응시켜 보면, ‘呈同行’은 구양수의 ‘下直呈同行三公’, ‘答子履’는 ‘奉答子履學士見贈之作’, ‘汝陰三絶’은 ‘再至汝陰三絶’, ‘戲書’는 ‘戲書示黎教授’, ‘靑州’는 ‘靑州書事’를 말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의 제목을 차례대로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마음을 깃들이다 - <하직하며 동행한 세 분에게 바치다>(下直呈同行三公)의 韻을 써서』
- 『풍경을 읊다 - <자履(陸經)의 字) 學士가 보낸 시에 답하다>(奉答子履學士見贈之作)의 운을 써서』
- 『흥을 적다 - <다시 汝陰에 와서>(再至汝陰) 절구 3수의 운을 써서』
- 『명주를 추억하며 - <장난스레 써서 黎教授에게 보이다>(戲書示黎教授)의 운을 써서』
- 『한낮의 창 - <靑州에서>(靑州書事)의 운을 써서』

한편 『을병조천록』에는 시의 제목이 꽤 긴 작품이 여러 편 있다. 다음 시 제목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 구절의 번역이 부정확하다.

- 『우연히 육엄산 심의 문집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원사를 가지고 20책을 써서 시를 지었다. 시에 이르기를, “주머니서 꺼내는데 꼭 한 달이 걸렸으며, 시령 위에 새로 한 묶음의 책 더 있네. 다만 고서를 늘 손에 들고 있고, 시골집 식탁 생선 못 먹어도 나는 좋네.”라고 하였다. 그 시를 읽어보니, 육심의 옛 사람의 소박한 소원을 따른 것이 내 마음에 실로 얻은 것이 많아 마침내 그 운을 취하여 그에 답함!』<sup>11)</sup>  
(偶閱陸儼山[深]集, 『有人持元史至, 用二十陌得之』詩云: “囊中恰減三旬用, 架上新添一束書. 但

9) 許筠, 『국역 성소부부고』, I -201~207면.

10) 『국역 을병조천록』 또한 「杏山-用前韻」, 「夜坐述懷-用李學官柳行臺別詩韻」, 「丘中有一士-用樂天韻」, 「晝夢-復用灰字韻」 등의 시 제목 번역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견된다(『국역 을병조천록』, 19·73·88·109면 참조).

11) 『국역 을병조천록』, 120면.

使典墳常在手, 未嫌茅舍食無魚.” 讀之深協鄙願, 古人實獲我心, 遂步韻和之云)

원문의 “陸儼山集”은 명나라의 문신 陸深(1477~1544)의 문집 『儼山集』을 말한다.<sup>12)</sup> 陸深은 後七子의 한 사람인 徐禎卿과 교류하며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때 위의 제목 번역에서는 밑줄 부분이 오역으로 보인다. 제목을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우연히 『육엄산집』(陸儼山集)을 보았는데, ‘어떤 이가 『원사』(元史)를 가지고 와서 돈 2천을 들여 얻다(人持『元史』至, 用二十陌得之)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든 대신 / 책장에 책 한 점이 새로 더해졌네. / 옛날 책이 늘 내 손에 있으니 / 초가집에 고기반찬 없는 살림 싫지 않군.”(囊中恰減三旬用, 架上新添一束書. 但使典墳常在手, 未嫌茅舍食無魚.) 이 시를 읽으니 평소의 내 바람과 꼭 같았다. 옛사람이 참으로 내 마음을 얻었기에 마침내 같은 운(韻)으로 시를 짓는다』

정리해 보면 제목과 副題를 구분하지 않고 옮긴 단순 실수에 次韻의 대상이 된 原詩에 대한 조사 불충분이 겹쳐 제목 번역에 오류가 생기기도 했고, 전반적인 맥락 파악에 착오가 생기면서 제목 번역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목 번역 역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할 문제임을 알려 준다. 제목 번역상의 문제는 개인 번역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한국고전번역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번역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열·감수 과정을 통해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번역 결과물의 사후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한데, 위의 경우처럼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오류는 여러 연구자·독자의 제안을 수시로 수합·검토하여 웹상에서라도 좀 더 완벽에 가까운 번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오역 혹은 불친절한 번역

고전 번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한시 번역이 아닐까 한다. 전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고 함축적인 시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 전반의 의미 맥락을 장악한 뒤 그것을 다시 우리말 시에 가깝게 옮겨야 하니 어려움이 가중된다. 함축적인 한시를 다시 함축적인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 으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호해진다. 필자 역시 기존의 한시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번역이 더 큰 오류를 범할 처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번역 시구의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 의미 맥락 파악에 혼선이 생겨 명백한 오역이 발생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살피고자 한다.

먼저 『自戲』 2수 중 제1수를 보자.

어린 나이 제명을 젊어졌으니  
밝은 구슬 서울에 빛났더라오  
팔자 기막 뜬 영화는 녹아 버리고  
남의 경멸 받았어라 미친 태도는  
옥수는 바람 앞에 결백도 한데  
금경은 갈증 뒤에 해맑군그래  
지문 해에 머물러 쌀 구하다니

12) 『人持『元史』至, 用二十陌得之』는 『儼山集』續集 권7에 수록되어 있다.

돌아가는 꿈이 저 동영에 있네<sup>13)</sup>

(小少負才名,明珠耀上京.浮榮消命薄,狂態受人輕.玉樹風前皎,金莖渴後清.歲時淹索米,歸夢在東瀛.)

밑줄 친 제5구부터 제8구까지의 번역이 의미가 모호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다. 원문을 함께 본다면 해도 “金莖”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지문 해에 머물러 쌀 구하다니”와 “돌아가는 꿈이 저 東瀛에 있네”라는 구절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앞의 네 구는 허균 자신이 어려서부터 재주 있다는 명성을 드날렸지만 헛된 영화를 좇다가 운명이 기박해지고 미친 행동으로 세상의 경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5구와 제6구는 시련을 겪은 뒤 더욱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莖’은 신선을 추구하던 한나라 武帝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여기서는 ‘신선세계의甘露’를 뜻한다.<sup>14)</sup> 제7구와 제8구는 허균 자신의 현재 처지와 앞으로의 지향을 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제5구부터 제8구까지를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천상의 옥나무는 바람 앞에서 빛나고  
신선의 이슬은 마른 뒤에 맑다지.  
사시사찰 쌀 마련하는 일에 묶인 채  
내 고향 동쪽 바다로 돌아갈 꿈을 꾸네.

본래의 번역과 차이가 큰 제7구의 “사시사찰 쌀 마련하는 일에 묶인 채”라는 구절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시는 허균이 1607년 정3품 內資寺正을 지내던 때 쓴 시를 묶은 『太官稿』에 들어 있다. ‘內資寺’는 궁중의 음식, 연회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관장하는 관아이니, 허균이 ‘쌀 마련하는 일에 묶여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내자시 벼슬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목이 언급되었던 「記興-用汝陰三絶韻」 제2수의 제1구와 제2구를 보자.

한 굽이 경포대는 자꾸자꾸 꿈에 드네  
구년이라 봉래도(蓬萊島) 심진을 저버렸군<sup>15)</sup>  
(一曲鏡湖勞入夢,九年蓬島負尋眞.)

여기서는 제2구의 번역이 너무 어렵다. 신선을 추구한다는 뜻의 ‘尋眞’을 풀지 않다 보니 독자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이 구절은 “봉래도에서 신선 만날 기약 아홉 해나 저버렸네” 정도로 옮겨야 할 것이다.

다음 시도 비슷한 예이다.

호정은 참 좋을 텐데 이내 몸이 천리라니  
포말이라 청전으로 어느 날에 돌아가지<sup>16)</sup>  
(湖亭正好身千里,布鞵青纏幾日歸.)

「養眞堂卽事-用豐樂亭遊春韻」 제2수의 제3구와 제4구이다. 역시 “포말이라 청전으로”라는 구절이 이해하기 어렵다. ‘베버선과 푸른 신’으로 옮기고, 이것이 隱士의 복장임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호수가 정자 좋아라 천 리 밖에 온 내 몸  
베버선에 푸른 신 신고 언제나 돌아갈까.

다음은 고사 파악에 오류가 있어 번역이 모호하게 된 예이다.

죽어감을 탄식한 안인(安仁) 한을 누라 알리<sup>17)</sup>  
(誰知嘆逝安仁恨?)

허균이 1593년 7월 7일, 피난중에 세상을 뜬 아내 안동 김씨의 1주기를 맞아 쓴 「七夕咏懷詩」 제5수 중의 한 구절이다. 위의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석이 달려 있다.

안인은 진(晉) 나라 때 문장가 반약(潘岳)의 자. 반약이 손수(孫秀)의 무함을 받아 멸족(滅族)의 화(禍)를 당했던 일을 가리킨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sup>18)</sup>

그러나 여기서 潘岳이 언급된 것은, 부부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던 반약이 아내 楊氏를 여의고 1주기 때 다시 관직에 복귀하며 아내 잃은 서글픈 심정을 토로한 「悼亡詩」를 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통해 반약 고사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내의 죽음을 탄식하던 안인(安仁)\*의 한을 그 누가 알까

-----  
\* 안인(安仁): 진(晉)나라의 문인 반약(潘岳)의 자(字). 반약 부부는 금슬 좋기로 유명했는데, 반약이 아내 양씨(楊氏)를 여의고 1주기 때 다시 관직에 복귀하며 서글픈 심정을 토로한 「도망시」(悼亡詩)가 유명하다.

『국역 을병조천록』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한층 심각한 오역이 여럿 발견된다. 「路左有演西廂戲者」(길가에서 『西廂記』 연극을 보고) 제2수의 제1구와 제2구가 대표적 사례이다.

소년시절 일찍이 모여서 시 읽더니,  
일찍 미친한 놈 전기를 지었다네.<sup>19)</sup>  
(少年曾讀會眞詩,嘗鄙微之作傳奇.)

여기서는 『西廂記』의 모태가 된 당나라 元稹의 傳奇小說 「鶯鶯傳」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탓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會眞詩」는 바로 元稹이 「鶯鶯傳」에 붙인 시이고 ‘微’는 元稹의 字이며, ‘傳奇’는 바로 「鶯鶯傳」을 가리킨다. 위의 구절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소년 시절 「會眞詩」 읽고는

17) 許筠, 「七夕咏懷詩」, 『국역 성소부부고』, I-272면.  
18) 같은 글, I-272면.  
19) 許筠, 「路左有演西廂戲者」, 『국역 을병조천록』, 27면.

13) 許筠, 「自戲」, 『국역 성소부부고』, I-145면.

14) 같은 맥락에서 허균이 숭앙하던 王世貞의 「職方張子畏募兵選詩問予病,奉答兼識鄙感」 중 “露渺金莖渴未蘇”(『弁州四部稿』 권34)라는 시구를 참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15) 許筠, 「自戲」, 『국역 성소부부고』, I-204면.

16) 許筠, 「養眞堂卽事-用豐樂亭遊春」, 『국역 성소부부고』, I-209면.

元頽이 傳奇 지은 일 우습게 여겼네.

「燕市行」 중의 다음 구절 역시 앞의 ‘微之’처럼 인명을 잘못 옮긴 예이다.

애석하다. 형가의 졸렬한 검술이여!  
공연히 목을 찢어 피만 줄줄 흘렸구나.  
(…)

저자거리 약기 연주 그대는 웃지 말게.  
겁나는 것 때때로 떠나는 이 점점 많네.<sup>20)</sup>

(惜哉荆卿劍術疎, 空使於期頭流血。 (…)) 市中擊筑君莫笑, 恐類當時高漸離。

“於期”가 燕나라로 망명 온 秦나라 장군 ‘樊於期’임을, “高漸離”가 荆軻의 동지이자 筑 연주로 유명했던 인물임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심각한 오역이 발생했다.<sup>21)</sup> 널리 알려진 대로, 荆軻는 진시황에게 접근하기 위해 樊於期の 목이 필요했으며 樊於期는 그 때문에 자결했고, 高漸離는 荆軻의 진시황 살해 시도가 실패한 뒤 스스로 장님이 되어 진시황 앞에서 筑을 연주하다가 筑을 던져 진시황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고사를 염두에 두고 위의 구절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애석하구나 荆軻의 서툰 검술이여  
樊於期만 공연히 제 목을 바쳤네.  
(…)

시장 안의 筑 연주 소리 비웃지 마오  
그 옛날 高漸離의 연주도 비슷했을 테니.

위와 같은 종류의 오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열·감수 과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번역자가 번역에 들이는 시간과 공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지역별 거점연구소를 통한 문집 번역의 경우 번역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단행본 1권에 가까운 분량을 번역해야 한다. 번역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한문 문집은 번역자가 1년 내내 번역에만 전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이다. 충분한 시간과 공력을 들여도 깜빡하는 사이 착각을 범하는 것이 번역이다. 더욱이 수시로 등장하는 난해한 典故 하나하나마다 번역자가 풍부한 정보를 담되 간결하고 절도 있는 주석을 달아야 하며, 때로는 기존 연구 수준 이상의 조사 검토를 통해 ‘학술번역’에 합당한 주석<sup>22)</sup>을 달아야 한다. 비교적 완비된 형태의 定本을 대상으로 삼는 서구 문학작품 번역 작업의 몇 배나 되는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번역 작업에 비추어 번역 의무 분량이 부과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양질의 번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23)</sup>

20) 許筠, 「燕市行」, 『국역 을병조천록』, 42면.

21) 「題王司寇劍俠傳後」 역시 ‘專諸’·‘藹政’·‘髡髻客’ 등이 인명 혹은 인물의 별칭임을 모르고 잘못 옮겼고, ‘晉陽公子’(唐太宗)는 전혀 다른 인물로 착각하면서 번역에도 큰 오류가 발생했다(『국역 을병조천록』, 57면 참조). 『讀章本清心性說有感』에서는 ‘縱使伯安尊德性’을 “다만 정사께서 덕성을 보존하니”(『국역 을병조천록』, 91면)라고 옮겼는데, 이는 ‘伯安’이 王陽明의 字임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오역이다.

22) 심경호, 「한문고전번역에서 학술 번역의 개념과 그 역할」(『한자한문연구』 4,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8)에서 언급한 대로 ‘학술번역’은 “철저한 문헌 고증을 토대로 하면서 완전한 주석을 곁들인 번역”(132면)을 말하며, 학술번역의 주석은 “원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148면)이어야 한다.

#### 4. 文 번역의 몇 가지 문제

##### 1) 오역

먼저 어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오역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아아, 우리나라가 산과 바다 사이에 외져 있어 땅덩이는 좁은데다가, 동남은 왜구들과 이웃이 되고 북은 말갈(靺鞨)로 경계가 되며 서쪽에는 삼위(三衛)와 여진(女眞)이 강 밖에 바짝 접근하였는데(…)<sup>24)</sup>

(嗚呼! 我國僻在山海間, 壤地狹小, 東南與倭奴作隣, 北以靺鞨爲界, 西則三衛女眞, 迫近江外…)

원문의 “三衛女眞”을 아무런 주석 없이 “삼위와 여진”으로 옮겼다. 그런데 ‘삼위’는 명나라 초에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南滿洲 일대의 여진족을 포섭하기 위하여 설치한 ‘建州 三衛’를 말한다. 建州本衛·建州左衛·建州右衛의 三衛를 누르하치가 규합하여 後金を 세운 것인바, 원문의 “三衛女眞”은 ‘삼위와 여진’이 아니라 ‘삼위로 이루어진 여진족’, 곧 여진족의 後金을 뜻하는 ‘삼위 여진’으로 옮겨야 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삼위와 여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번역문이나 주석에서 밝혀 주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樞翁頌」의 다음 대목 역시 미묘한 오류가 있다.

마음은 편안하고 정신은 깨끗하고  
못나 터지고 고루하지만  
정기는 몽쳐서 단단하다네  
어리석고 무식하니  
형벌 받는다 해도 두려움 없고  
좌천된다 해도 슬퍼도 않네.<sup>25)</sup>  
(心安神精, 庸陋之取. 精聚氣完, 愚無識故. 遭刑不怖, 遭貶不悲.)

인용문 제1행부터 제3행까지와 제4행부터 제6행까지가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제2행과 제4행에 주목해 보면 실은 제1행과 제2행, 제3행과 제4행이 각각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 편하고 정신이 깨끗한 건  
용렬하고 비루한 데서 온 것.  
정기가 모이고 기운이 온전한 건  
어리석고 무식한 데서 온 것.  
형벌을 당해도 두려워 않고  
벼슬에서 쫓겨나도 슬퍼 않네.

「對語者」에도 오역 내지 모호한 번역이 몇 군데 보인다.

23) 주석 작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4) 許筠, 「西邊備虜考序」, 『국역 성소부부고』, II-57면.

25) 許筠, 「樞翁頌」, 『국역 성소부부고』, II-262면.

풍이며 송은 나의 반려자로  
 명소(命騷)는 나의 노복으로  
 큰 사업인양 으쓱거리고  
 온 천하를 좁게 본다오<sup>26)</sup>  
 (風頌爲伍, 命騷僕奴, 詔爲大業, 陰視輿區.)

인용문의 첫 줄은 “風”과 “頌”이 『詩經』을 가리킨다는 점을 명확히 해 주어야 의미 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의 밑줄 친 둘째 줄이 오역이다. “騷”는 屈原의 『離騷』를 가리키고, “命騷僕奴”은 당나라의 천제시인 李賀가 27세로 요절하자 당시 사람들이 李賀의 수명이 좀 더 길었더라면 『이소』를 종처럼 여길 정도로 드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위의 구절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詩經』을 친구로 삼고  
 『離騷』를 종으로 삼아  
 대단한 문학을 한다 우쭐대며  
 온 세상을 좁게 여기네.

『對詰者』의 또 다른 구절을 보자.

무사람이 즐기는 것 나는 싫고  
 무사람이 높이는 것 나는 더러워  
 풍병이 들었다고 남들은 말하지만  
 나는 웃는 것이 좋다오<sup>27)</sup>  
 (衆嗜爲惡, 衆尊爲汚, 人曰病風, 我喜呼盧.)

마지막 줄의 “呼盧”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 ‘呼盧’는 ‘賭博’ 혹은 ‘騙欺’의 뜻이니, 여기서의 사기 내지 속임수의 뜻으로 썼다. 그렇다면 원문의 밑줄 부분 “我喜呼盧”까지도 그 앞 구절의 “人曰”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나는 싫고  
 남들이 높이는 걸 나는 더러이 여기니  
 남들은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속임수를 좋아한다고 하지.

『解命文』의 다음 구절도 맥락이 닿지 않는 오역 사례이다.

아 군자란  
 다만 하늘에 맡긴다오  
 굳이 재주와 총목을 다 함께 얻으려면  
 저 좌구명(左丘明)과 사마천(司馬遷)이 앞서 얻었고<sup>28)</sup>  
 (嗟之君子兮, 只任之天, 固使才而得其寵祿兮, 彼瞽史與腐令兮幾得乎先.)

26) 許筠, 『對詰者』, 『국역 성소부부고』, II-224면.  
 27) 許筠, 『對詰者』, 『국역 성소부부고』, II-225면.  
 28) 許筠, 『解命文』, 『국역 성소부부고』, II-220면.

『해명문』의 전체 맥락은 허균 자신의 운명이 같은 별자리의 한유와 소동파처럼 기구하지 만 이들이 천 년 뒤까지 문장으로 이름을 남겼듯이 자신 또한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불멸의 문장가들이 갔던 길을 따르리라는 것이다. 위의 밑줄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春秋左傳』을 지었다고 전하는 左丘明과 『史記』를 쓴 司馬遷은 불후의 문장가로 거론된 것이지 ‘재주와寵祿을 함께 얻은 이’로 거론된 것이 아니다. 이런 각도에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아아, 군자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  
 굳이 재주 부러 부귀영화 얻은들  
 저 좌구명과 사마천을 능가할 수 있는가?

『答李生書』의 서두는 ‘揚擢’ 두 글자에 대한 오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하 문장까지 해석이 모호해진 경우다.

보내온 서한에 불후(不朽)의 대업(大業)을 물었으니 매우 훌륭한 생각이오. ㉔그러나 나의 천박하고 비루한 식견으로 어떻게 만에 하나나마 반론할 수 있겠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대의 질문이 선진(先秦)과 한당(漢唐)의 일컫는 바 대가(大家) 작자(作者)에게 미치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 자상스럽게 물었으니 ㉕이 어찌 비론(卑論)을 편 것이겠습니까?<sup>29)</sup>  
 (辱惠書, 詢以不朽大業, 甚盛心也, 而僕之謙陋, 何足以揚擢萬一乎? 竊竊怪生之間不及於先秦漢唐所稱大家作者, 獨諄諄吾東, 是何卑論耶?)

㉔에서 “반론”으로 번역한 것의 원문은 “揚擢”인데, “揚擢”은 대강을 요약한다는 뜻이다. 李生이란 이가 ‘불후의 대업’ 곧 문학에 대해 묻자 허균은 ‘나의 천박한 식견으로 어찌 만의 하나라도 대강을 요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㉕에서는 李生이 중국 선진(先秦)과 한(漢)·당(唐)의 문장 대가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 작가에 대해서만 물은 것이 ‘卑論이 아니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 의미이다. 문맥상으로도 그렇지만 문장 안에서만 보아도 ‘이상하게도’(怪)라는 말이 맥락에 닿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중국의 역대 문장가들에 대해 논하지 않고 우리나라 작가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으니, 이는 낮은 수준의 논의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허균의 본의이다.<sup>30)</sup> 이 대목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편지에서 불후의 대업(문학)에 대해 물으시니 참으로 성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천박한 식견으로 어찌 만의 하나라도 대강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질문이 先秦과 한나라와 당나라의 大家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 작가에 대해서만 자제하라는 점이니, 이것은 낮은 수준의 논의가 아닐는지요?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어구의 의미 파악에 오류가 생겼거나 전체적인 의미 맥락에 착오가 일어나며 생겨난 오역이다. 대개는 각종 공구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번역에 충분한 시간과 공력을 들이지 못하거나 번역자가 해당 구절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오류라

29) 許筠, 『答李生書』, 『국역 성소부부고』, II-177면.

30) 이어지는 대목에서 崔致遠·鄭知常·李仁老·李奎報 등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그 한계를 논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국역 성소부부고』, II-177면 참조).

서 번역자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제 역시 한국고전번역원이나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한문고전번역의 경우 번역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한편 교열·감수 기능을 강화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2) 주석 오류 혹은 미비

본문 번역 이상으로 공력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주석 작업이다. 기존의 사전을 활용하여 문맥에 부합하는, 절도 있는 주석을 다는 일도 어렵거니와, 때로는 몇 줄 주석을 위해 연구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단순 착오로 인한 주석 오류의 예를 들어 본다. 다음은 「小人論」의 한 구절이다.

이른바 권간(權奸)이라는 자들도 있었다. 김안로(金安老)가 일찍이 농간을 꾀웠고, 윤원형(尹元衡)도 일찍이 권권을 휘둘렀다. 요즘에는 최영경(崔永慶) 역시 전횡하고자 하여 자기 자신만을 이익되게 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했음은 동일한 방법이었다.<sup>31)</sup>  
(近日永慶亦欲專之, 其自利而斥異己, 則同一揆也.)

『국역 성소부부고』에서는 원문의 “永慶”을 선조 때의 학자 崔永慶으로 보아 鄭汝立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무고하게 처형된 인물로 주석을 달았으나 문맥과 전혀 동떨어진 주석이다. 「小人論」에서 말하는 ‘永慶’은 당연히 宣祖 때 영의정을 지낸 柳永慶(1550~1608)을 가리킨다. 小北의 영수로서 大北의 奇自獻·鄭仁弘 등과 갈등을 빚다 광해군 즉위 후 이이첨 등의 탄핵을 받아 사형당한 인물이니, 허균이 생각하는 ‘權奸’의 목록에 올리기에 적합하다.

한편 「石洲小稿序」에서는 허균이 권필의 시를 기려 “婉而有味簡齋若也”라 한 것을 “순하고 맛있기는 간재(簡齋) 원매(袁枚)와 같으니”<sup>32)</sup>라고 옮겼으나 여기서의 ‘簡齋’는 18세기 청나라의 문인 袁枚(1716~1797)의 호가 아니라 송나라의 시인 陳與義(1090~1138)의 호일 터이다.

「晏子」의 다음 구절 역시 주석을 달지 않아 생긴 오역이다.

안자는 그저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만 남의 뜻대로 따라 하여 세상에 용납을 받은 사람일 뿐이니, 최경(崔慶)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또한 다행이다.<sup>33)</sup>  
(晏子特不汚其身, 俯仰以取容於世者, 其不死於崔慶, 亦幸矣.)

‘崔慶’에 대한 아무런 주석 없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다. 춘추시대 齊나라의 재상 崔杼와 慶封을 가리킨다는 주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遺才論」에는 맥락을 놓친 주석이 보인다.

옛날의 어진 인물은 대부분 미천한 데서 나왔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법을 사용했다면, 범문정(范文正)은 정승의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고, 진관(陳瓘)·반양귀(潘良貴)는 직신(直臣)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마양저(司馬穰苴)·위청(衛靑)과 같은 장수, 왕부(王符)의 문장(文章) 등은 끝내 세상에 쓰이지 못했으리라.<sup>34)</sup>

(古之賢才, 多出於側微, 使當世用我之法, 是范文正無相業, 而陳瓘·潘良貴不得爲直臣, 司馬穰苴·衛靑之將, 王符之文, 卒不見用於世否.)

여기서 문제는 陳瓘 이하의 인물에 대한 주석이다.

진관은 송 나라 사람. 호는 요옹(了翁). 진사(進士)로 태학박사(太學博士)를 역임. 간관(諫官)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시호는 충숙(忠肅)임. 반양귀는 송 나라 금화인(金華人). 호는 묵성(默成). 부당한 관리를 여러 차례 탄핵한 직신이었다. 사마양저는 춘추 시대의 제(齊) 나라 사람. 성은 전씨(田氏). 미천한 출신으로 병법에 밝아서 대사마(大司馬)가 되었다. 병서(兵書)를 남겨 사마 병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위청은 한(漢) 나라 평양인(平陽人). 본래 정씨(鄭氏)인데, 어머니가 개가(改嫁)하여 위씨(衛氏)가 되었음. 무제(武帝) 때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고 대장군(大將軍)이 되었음. 장평후(長平侯)에 봉해지고 시호는 열(烈)임. 왕부는 후한(後漢) 임치인(臨淄人).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지조를 지켰음. 끝내 벼슬하지 않고 「잠부론(潛夫論)」을 지어 문명을 남겼다. 마옹(馬融)과 특히 친했다.<sup>35)</sup>

위의 주석에는 「유재론」에서 허균이 陳瓘 이하의 인물들을 어떤 맥락에서 거론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司馬穰苴와 衛靑의 출신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문맥에 합당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서열과 개가한 여인의 자식 등에게도 과거를 볼 자격을 주어 널리 뛰어난 인재를 구해야 한다는 「유재론」의 맥락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주석을 다시 달아 보면 다음과 같다.

- 陳瓘과 潘良貴: 모두 北宋의 문신으로, 左司諫을 지내며 간언을 잘했던 강직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는 다르지만 賤婢 출신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이다.
- 司馬穰苴: 춘추시대 齊나라의 장군으로, 서열 출신이다.
- 衛靑: 한나라 武帝 때의 장군으로, 과부가 된 어머니가 사탕하여 낳은 자식으로 알려져 있다.
- 王符: 「潛夫論」을 저술한 後漢의 학자로, 서열 출신이다.

주석이 필수적인 곳에 아예 주석이 없거나 주석이 미비하여 번역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兵論」의 다음 구절을 보자.

군사 많기로는 모거경(毛居敬)·유사(劉沙)·관선생(關先生)과의 싸움에서도 옛 고려에서는 모두 싸워서 격퇴시킬 수 있었다.<sup>36)</sup>  
(衆如毛居敬·沙劉·關先生, 皆得而擊却之也.)

紅巾賊 장수로서 고려를 침입했던 毛居敬·沙劉·關先生에 대한 주석이 빠져 있고, ‘沙劉’는 ‘유사’로 잘못 적었다.

「四友齋記」의 다음 구절에도 주석이 달려 있지 않다.

하늘의 복을 입어, 흑시라도 전야로 돌아가도록 허락된다면, 관동(關東) 지방은 나의 옛 터전이라 그 경치며 풍물이 중국의 시상산(柴桑山)·채석산(采石山)과 견줄 만하고, 백성은 근실하고 땅은 비옥하여 또한 중국의 상숙현(常熟縣)과 양선현(陽羨縣)보다 못지 않으니, 마땅히 세

31) 許筠, 「小人論」, 『국역 성소부부고』, II-195면.

32) 許筠, 「石洲小稿序」, 『국역 성소부부고』, II-44면.

33) 許筠, 「晏子」, 『국역 성소부부고』, II-246면.

34) 許筠, 「遺才論」, 『국역 성소부부고』, II-191면.

35) 같은 글, II-191면.

36) 許筠, 「兵論」, 『국역 성소부부고』, II-189면.

군자를 받들고 감호(鑑湖) 가에서 초복(初服) 입던 신세로 돌아간다면, 어찌 인간 세상의 한가지 즐거운 일로 되지 않겠는가.<sup>37)</sup>

(微天之福，倘許歸田，則關東，余舊業也，其景物風煙，可與柴桑采石相埒，而民愿土沃，又不下於常熟陽羨，當奉三君子，返初服於鑑湖之上，豈不爲人間一樂事乎?)

‘시상산’·‘채석산’·‘상숙현’·‘양선현’에 대한 주석이 없어 陶淵明과李白과 蘇東坡를 벗으로 삼았다는 이 글에서 왜 이 지명들이 열거되고 있는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柴桑村’은 陶淵明의 고향이자 은거지이고, ‘采石江’은李白이 이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며, ‘常熟’은 蘇東坡가 생을 마친 곳이고, ‘陽羨’은 소동파가 은거하고자 농장을 마련했던 곳이다. 이런 내용의 주석이 추가되어야 작품의 의미가 한층 정확히 전달될 것이다.

『明四家詩選序』 중의 다음 대목도 문맥에 부합하지 않은 주석 때문에 번역에 오류가 생긴 경우로 보인다.

우린(于鱗)은 우뚝 솟고 맑고 장엄하여, 눈자들이 민아산(岷峨山)의 쌓인 눈으로써 비교하는데, 거의 함당하다 할 만하다. 『고악부(古樂府)』는 그대로 모방함을 면치 못했으나 수천 년 동안 감히 본받는 사람이 없더니, 우린(于鱗)이 홀로 비숫했는데 바로 그 말한 바, “의의(擬議)하여 변화를 이루었다.”

한 것이 허무(虛誣)한 바는 아니며, 오언(五言)은 그 율법(律法)에 꼭 들어맞아 심전기(沈佺期)나 송지문(宋之問)의 맑고 힘찬 것 그대로이다.<sup>38)</sup>

(于鱗峭拔清壯，論者以岷峨積雪方之，殆足當矣。古樂府，不免臨摹，而數千年來，人無敢效者，于鱗獨肖之，即其所言擬議以成變化者，爲非諛矣，五言破的，眞沈、宋之清勁者也。)

『국역 성소부부고』에서는 ‘古樂府’를 윈나라 左克明이 編한 『古樂府』로 보아 주석을 달았으나 이 문맥에서는 李攀龍이 쓴 擬古樂府를 말한다.<sup>39)</sup> 위 인용문을 다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李攀龍의 시는 우뚝하고 준엄하며 맑고 석석해서 평론하는 이들은 岷山과 峨眉山에 쌓인 눈에 비유했는데, 타당하다고 할 만하다. 이반룡의 古樂府가 비록 모방을 면치 못한 것이기는 하나, 수천 년 동안 감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반룡이 홀로 흡사하게 재현했으니, 바로 “과거의 전범을 충분히 고려한 뒤 변화를 이룬다”라는 그의 말이 허튼 것이 아니었다. 오언시는 핵심을 꿰뚫어 참으로 沈佺期和 宋之問처럼 맑고 굳세다.

“의의(擬議)하여 변화를 이루었다”(擬議以成變化)라는 구절에 대해서도 주석이 필요한데, 『국역 성소부부고』에는 빠져 있다. ‘擬議以成其變化’는 본래 『주역』 『繫辭』 상에 나오는 말로, ‘행동하기에 앞서 충분히 생각하여 변화를 이룬다’라는 뜻이다. 이반룡은 자신의 擬古樂府에 손수 붙인 서문에서 이 말을 인용하되 ‘과거의 전범을 충분히 고려한 뒤 변화를 이룬다’라는 의미로 썼다.<sup>40)</sup>

37) 許筠, 『四友齋記』, 『국역 성소부부고』, II-97면.

38) 許筠, 『明四家詩選序』, 『국역 성소부부고』, II-51~52면.

39) 이 작품들은 李攀龍의 『滄溟集』 권1 서두에 실려 있다. 한편 평론하는 이들이 이반룡의 시를 峨眉山에 쌓인 눈에 비유했다는 것은 王世貞의 다음 언급을 염두에 둔 말이다: “李于鱗如峨眉山積雪，閩風蒸霞，高華艷色，罕見其比。”(王世貞, 『藝苑卮言』, 규장각 소장 목판본, 권5 제13조)

40) “『易』曰: ‘擬議以成其變化’, ‘日新之謂盛德’. 不可與言詩乎哉!”(李攀龍, 『古樂府序』, 『滄溟集』 권1)

『西游錄跋』의 다음 대목은 한문 고전 번역에서 주석 작업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지금 보전대 그 책은 독특하게 불가(佛家)의 수련(修煉)하는 의미를 가설(假說)하였다. 후왕(猴王)의 좌선(坐禪)은 곧 몸을 단련하는 것이며, 노조궁(老祖宮)에서 단(丹)을 훔친 것은 곧 서주(黍珠)를 삼킨 것이며, ⑥대요천궁(大鬧天宮)은 곧 연념(煉念)이며, 법사(法師)를 모시고 서역(西域)에 가는 것은 곧 ⑥하거(河車)를 운반(運搬)하는 것이며, 화염산 홍해(火炎山紅孩)는 곧 화후(火候)이며, ⑥흑수(黑水)가 천하(天河)에 통한다는 것은 곧 퇴부후(退符候)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서호(西虎)가 동룡(東龍)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루에 서천(西天) 10만 리를 돌아온다는 것은 곧 온 하늘의 뻑뻑한 별을 일시에 쏠한다는 것이다.<sup>41)</sup>

(今其書特假修煉之旨。如猴王坐禪，即煉己也；老祖宮偷丹，即吞黍珠也；大鬧天宮，即煉念也；侍師西行，即搬運河車也；火炎山紅孩，即火候也；黑水通天河，即退符候也；至西而東還，即西虎交東龍也；一日而回西天十萬路，即攢簇周天數於一時也。)

『국역 성소부부고』에서는 위의 대목에 주석이 전혀 없다. 이를테면 ⑥대요천궁(大鬧天宮)은 곧 연념(煉念)이며”라는 번역에서 ‘大鬧天宮’은 『西游記』 제7회에서 손오공이 仙丹과 蟠桃를 훔쳐 먹고 화로 안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여 옥황상제의 궁궐에서 난동을 부리는 대목을 말한다. 이 내용을 주석에서 밝히고 ‘천궁에서 큰 소동을 벌이는 대목은 곧 마음을 단련하는 것에 해당하고’라 옮겨야 할 것이다. ⑥“하거(河車)를 운반(運搬)하는 것이며”에서 ‘河車’는 煉丹의 원료가 되는 납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주석이 없으니 번역문의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 다음 구절의 火嶽山 요괴 紅孩에 대한 주석도, 煉丹의 마지막 과정에 해당하는 화후에 대한 주석도 없다. ⑥“흑수(黑水)가 천하(天河)에 통한다”는 구절은 원문의 “黑水通天河”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黑水河’와 ‘通天河’가 손오공이 인도로 가는 길에 요괴를 만나 곤경에 빠지는 강 이름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아 생긴 오류이다. “온 하늘의 뻑뻑한 별을 일시에 쏠한다는 것”(攢簇周天數於一時也)이라는 번역도 ‘수련의 횡수를 채우고 단번에 도를 얻는 것’ 정도로 옮겨야 하는데, 이는 煉丹術에서 90일을 하나의 순환 주기로 삼는 ‘周天’의 의미를 자세히 찾지 않아 발생한 오류이다.

『孫谷山人傳』의 다음 대목 역시 주석 작업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문선(文選)』과 이태백 및 성당(盛唐)의 십이가(十二家)·유수주(劉隨州)·위좌사(韋左史)와 백겸(伯謙)의 『당음(唐音)』까지를 꺼내서 문을 닫고 외었다.<sup>42)</sup>  
(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劉隨州、韋左史暨伯謙『唐音』，伏而誦之。)

여기서 ‘盛唐의 十二家’에 대한 주석이 문제다. “당 나라 성당(盛唐)의 시인으로 유명했던 12명의 시인”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허균은 ‘盛唐 十二家’라고 했지만 이 ‘十二家’는 명나라 문인 張遜業이 간행한 『唐十二家詩』에 뽑힌 王勃·楊炯·盧照鄰·駱賓王·陳子昂·杜審言·沈期·宋之問·孟浩然, 王維, 高適, 岑參의 열두 사람, 곧 ‘初唐과 盛唐의 열두 대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謝榛을 비롯한 명나라 後七子가李白·杜甫와 위의 十二家를 시의 모범으로 삼았던 바,<sup>43)</sup> ‘손곡산인전’의 이 언급은 허균 연구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번역자로서는 큰

41) 許筠, 『西游錄跋』, 『국역 성소부부고』, II-243면.

42) 許筠, 『孫谷山人傳』, 『국역 성소부부고』, II-122면.

43) 허균이 큰 영향을 받았던 王世貞을 위시한 後七子の 모임에서 謝榛은 이백·두보와 ‘十二家’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학술번역에서라면 이러한 주석까지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5. 맺음말

세상에 완전무결한 번역서가 과연 있을까?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류를 피할 수 없지만 번역자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직한 태도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일 뿐이다. 번역자로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번역서가 세상에 나오면 독자와 연구자는 냉정한 비판과 검증은 가해야 한다. 작은 오류를 들어 공을 폄하해서도 안 되겠지만, 심각한 오역 내지 '표절 번역'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번역의 좋은 사례를 들어 격려하는 일, 기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여 바로잡는 일 모두 보다 좋은 번역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좋은 번역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자가 번역과 주석에 들이는 시간과 공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원문과 번역·주석문에 대한 체계적인 교열·감수 과정이 필요하다. 번역자 홀로 이 모든 과정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번역자 외의 다른 전문가에 의해 교열·감수가 이루어질 경우 번역서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번역 결과물의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하다. 번역자 스스로, 혹은 타인의 도움으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인 번역의 경우 再版 출간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만 온전한 교정이 가능하겠지만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는 여러 가지 통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출간된 번역서를 대상으로 번역 수준을 평가하여 훌륭한 번역서를 널리 알리고 미흡한 번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주관하는 문집 번역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앞서 허균 문집 번역의 몇 가지 사례를 고려할 때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번역자가 번역·주석 작업에 최대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절한 번역 분량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지역별 거점연구소를 통한 문집 번역의 경우 번역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단행본 1권에 가까운 분량을 번역해야 한다. 번역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한문 문집은 번역자가 1년 내내 번역에만 전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이다. 충분한 시간과 공력을 들여도 깜빡하는 사이 착각을 범하는 것이 번역이다. 더욱이 수시로 등장하는 난해한典故 하나하나마다 번역자가 풍부한 정보를 담되 간결하고 절도 있는 주석을 달아야 하며, 때로는 기존 연구 수준 이상의 조사 검토를 통해 '학술번역'에 합당한 주석을 달아야 한다. 비교적 완비된 형태의 定本을 대상으로 삼는 서구 문학작품 번역 작업의 몇 배나 되는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번역 작업에 비추어 번역 의무 분량을 부과한 현재의 시스템으로서 양질의 번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를 합한 '十四家'가 唐詩의 모범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여 후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予客京時, 李于鱗, 王元美, 徐子與, 梁公實, 宗子相諸君, 招余結社賦。一日, 因談初唐, 盛唐十二家詩集, 并李杜二家, 孰可專爲楷範, 或云沈宋, 或云李杜, 或云王孟。予默然久之, 曰: '歷觀十四家所作, 咸可爲法。當選其諸集中之最佳者, 錄成一帙, 熟讀之以奪神氣, 歌咏之以求聲調, 玩味之以資精華, 得此三要, 則造乎渾淪, 不必塑謫仙而畫少陵也。夫萬物一我也, 千古一心也, 易駁而爲純, 去濁而歸清, 李杜諸公復起, 孰以予爲可教也。' 諸公笑而然之。” 謝榛, 『詩家直說』 297條; 李慶立 校箋, 『謝榛全集校箋』 下,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3, 1209면).

둘째, 교열·감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출판 이전에 번역서 전반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원문과 번역·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 내지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번역자의 1차 번역 못지않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러한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줄 전문가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열·감수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번역료에 준하는 감수 비용을 책정하고 그에 걸맞은 작업을 요구하는 방안, 교열·감수자에게 공동연구의 교신 저자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번역 결과물의 수정·보완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출간된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서 전반을 검토하면 허균 문집의 경우처럼 번역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오역, 각종 공구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오역 내지 보충해야 할 주석이 다수 발견되리라 본다. 단기적으로는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독자의 제안을 수시로 수합·검토하여 웹상에서도 좀 더 완벽에 가까운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출간 번역서 중 학술적 가치가 큰 문집을 집중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는 한편 가급적 쉬운 현대어로 바꾸어 전면적인 수정 재출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번역되지 않은 주요 문집이 허다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주력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번역 성과를 좀 더 완성도 높은 성과물로 발전시키는 일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지적한 몇몇 사례가 앞으로의 한문 고전 번역 사업을 발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懼所覆瓿』, 한국문집총간 7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중판, 1986.  
『국역 을병조친록』, 국립중앙도서관, 2005.  
권정열, 「한문고전번역의 특성과 과제」, 『인문학논총』 28,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72~76면.  
송혁기,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서 평가에 대한 일고」, 『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137~159면.  
심경호, 「한문고전번역에서 학술 번역의 개념과 그 역할」, 『한자한문연구』 4,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8, 132~148면.  
안대희, 「한문고전번역서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모델」, 『민족문화』 30, 한국고전번역원, 2007, 9~24면.  
윤재민·이동철 외, 「한문고전 정리·번역 시스템 연구」, 『민족문화』 33, 한국고전번역원, 2009, 267~270면.  
이상하,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제간 연계의 필요성」, 『대동한문학회』 31, 대동한문학회, 2009, 171~174면.  
진재교, 「한문고전 번역의 특수성의 안과 밖」, 『민족문화』 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5~37면.

## Abstract

# Problems of Translation of Heo Kyun's Collecton of Works and Classics in Classical Chinese

Chung Kil-soo

I researched several problems of translation of a collection of works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focusing Heo Kyun(許筠(1569~1618))'s *Seongso-bubugo* and *Ulbyeong-jocheonrok*.

Accordingly I pointed out the mistranslation caused by mistakes of input and revision, incorrect translations of titles, and errors in translation from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context concretely. Also, I suggested alternative measures, and extracted the causes of mistranslation.

As a result, I suggested the following points to be duly considered in translation of classics in classical Chinese:

- 1) To estim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translation
- 2) To take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revision and supervision
- 3)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published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ion of classics in classical Chinese, academic translation, Heo Kyun(許筠), Collecton of Works, *Seongso-bubugo* 惺所覆韻藻, *Ulbyeong-jocheonrok* 乙丙朝天錄